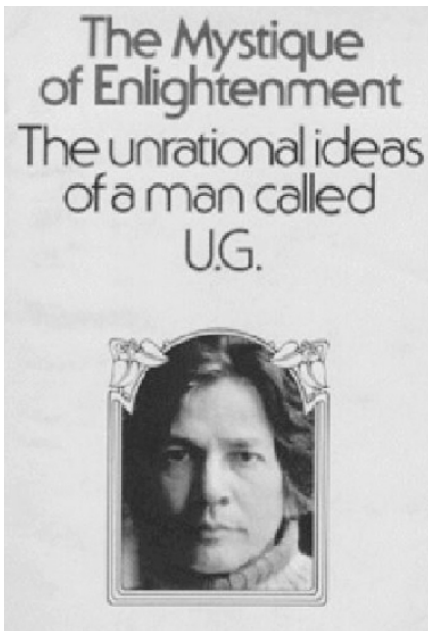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8부)

|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며 의식을 변형시킬 유일한 힘은 인간 내부에 있음을 역설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8부)

Q : 사이 바바Sai baba같은 현자들의 노력도 모두 소용없다는 것인가?

UG :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아바타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밖에 누가 할 수 있는가? 말해보라. 그러니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Q : 그래서 그것이 모두 소용없다는 것인가?

UG :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Q :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하고 있지 않는가?

UG : 기적이 무슨 소용인가? 정작 기적 중의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데. 삶 전체를 변형시키고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데 필요한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을 그가 할 수 있는가?

Q : 소위 지식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고 있다.

UG : 지식인이야말로 가장 아둔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다(웃음). 그들이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이다. 특별히 사이 바바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사이 바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적에 관심 없다.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청중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가 제일 기록한 사람인가? 그런 점에서라면 그가 제일이고, 제이, 제삼, 제사도 있다. 우리는 따르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기적 중의 기적이 일

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바타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 바바는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바타가 아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개인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바타가 아니다. 모든 개인 안에 구세주가 있다. 그 구세주가 밖으로 꽃피어 난다면, 그때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가?

Q : 우파니샤드 시대의 선지자들, 그들 모두는 개인적으로 꽃피어난 사람들 아닌가?

UG :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뭔가 있었다면 붓다가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붓다가 왜 나타났는가? 붓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파니샤드 후에 나타났다. 베다가 쇠퇴한 다음에 우파니샤드의 선지자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붓다가 나타났고 그 후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불교가 이 땅에서 타락해서 상카라가 나타나야 했다. 상카라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라마누자차리야가 필요해졌다. 다 같은 일이다. 그 다음에 마드바차리야가 왔다.

어쩌면 또 다른 선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신만이 안다. 그가 곧 나타날지 어떨지 나는 모른다. 우리 한가운데 있는 아바타들조차도 이 나라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 당신이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종종 신만이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말이다.

UG :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웃음) 인간은 신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게 매우 필수적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과 같은 의미로 신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신만이 아니라 ‘신’이 상징하는 모든 것, 신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모든 것을 말한다. 심지어 카르마, 환생, 재탄생, 죽음후의 삶, 사람들이 ‘인도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그런 유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그런 식이 아니다. 그건 방식이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다.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주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희망이 없고, 나라에도 희망이 없다.

개인이 신을 반대하거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그 중간에서 ‘불가지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든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간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다고 느낀다. 인간 외에 아무런 힘도 없다. 저 밖에 있는 힘은 전부 사람 안에 이미 있다. 경우가 그렇다면 그 힘을 외부로 나타내 상징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과, 신에 대한 의문은 오늘날의 인간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종교서적을 불태우고 모든 사원을 부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맹랑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원이나 책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은 밖에 있지 않다. 타밀사람인 라마스와 미 나이커처럼 모든 도서관을 불태우고 모든 종교서적을 태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신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원

천에 더 의존해야 한다. 당신이 말하는 유산이 오늘날 여기 이 사람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있게 했다. 우파니샤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선생들, 그들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은 이 사람의 일부이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싸움으로 끝날 뿐이다. 이슬람 부흥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슬람은 무엇인가? 그들은 분파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운다. 인도인들이 작은 종교를 만들어 서로 싸우는 것과 똑같다. 오늘날 신이 인간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신’이 상징하는 것은 이미 인간 안에 있으며 (인간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Q : 그렇다면 선생은 진화론을 믿는가?

UG : 다윈의 이론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획득된 형질은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의 기본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진화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진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간단한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닌가?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퇴보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게 행위의 자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인들이 고수해온 숙명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행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인은 과거의 짐,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유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개인이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는 옛날 일을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개인에게 달린 문제이다.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 당신들이 말하는 위대한 유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지혜를 깨부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때만이 오늘날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당신은 여기에 올 자유도 있고, 오지 않을 자유도 있다. 당신은 경제학이나 철학을 배우거나 가르칠 자유가 있다. 당신에게는 이런 제한된 자유가 있을 뿐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할 자유는 없다. 누구에게도, 그 어떤 나라도 그런 힘은 없다.

알다시피 인도는 힘이 없다. 심지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인 미국도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타임지도 더 이상 미국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러시아나 미국같은 나라도 통제할 수 없고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인도처럼 가난한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렵도 없다.

그래서 개인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개인 역시 전적으로 무기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은 과거의 짐,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과거로부터 놓여날 수 있을까? 개개인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는 듯하다. 행동의 자유가 없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도 희망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 운이 따른다면, 이상한 기회라도 있다면....

Q : 인간 외부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설명과 모순되는 듯하다.

UG : 인간 외부에 아무 힘이 없으면 신은 관계없어진다. 사람들이 말하는 뜻에서의 신이다. 사람 밖에는 아무 힘이 없다. 그 힘은 과거의 짐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기 존재하는 특별한 힘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

Q : 개인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가?

UG :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통제하고 주도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Q : 그저 흘러가는가?

UG : 사건에 따라 흘러간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는가? 세계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고 많은 이들이 왔다 간다. 세계는 스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영향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알다시피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Q : 그것이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인가?

UG : 알다시피 동물은 하나의 꽃이 된다. 꽃이 목적인 듯하다. 자연에 목적이 있다면 말이다. 꽃은 정말 많다. 한번 보라. 각각의 꽃은 그 자체로 독특하다. 자연의 목적은 그런 꽃, ‘인간’ 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인간’ 꽃은 겨우 한줌에 불과하다. 손가락으로도 헤아릴 수 있다. 최

근의 라마나 마하리쉬가 있고, 스리 라마크리슈나가 있고, 또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나 구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티루바나말라이Tiruvannamalai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서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 모든 구루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크다. 매우 이상하지 않은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는 인간 의식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구석진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말이다. 이해할 수 있는가?

나는 파리에서 한 기업가를 만났다.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인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인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웃음) 거기서 티루바나말라이에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보았다. “당신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있는가?”하고 물었더니 “나는 그 얼굴이 좋아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책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진이 좋아서 거기 뒀습니다. 그 사람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돕고 세상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Q :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대로 표현될지 모르겠다. 아는 게 없어서...

UG : 대강 말하면 된다. 당신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마누자차리야의 전기를 집 한 사람이 무지할리 없다.

나는 가끔 여기서 아드바이타(상카라의 일원론)의 지지자인 한 교수를 놀린다. “철학에 관한 한 당신은 라마누자의 입장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곳에서 멈추지요. 일원론은 당신이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것

인간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다.
저 밖에 있는 힘은 모두 인간 안에 이미 있다. 인간은 자신의 본원에
더 의존하여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꽃피워야 한다.

입니다.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나는 라마누자차리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상카라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당신은 라마누자차리야라는 친구를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철학적인 입장에 관한 한, 라마누자차리야의 입장은 한계다. 나머지는 어떤가? 일원론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바꾸는 데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Q: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는....

UG: 인간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산이라는 집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다. (동양도, 서양도 아니다. 동양도 없고 서양도 없다.) 그때 비로소 그는 개인이 된다. 먼저 그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개인이다.

그런 개인은 분명히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아주 미세한 정도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비유하자면 연못에 돌을 던질 때 그것은 중심원을 그리며 퍼지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 그와 같은 방식이다.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동물이다. 그리고 그는 유산 때문에 동물로 남아왔다. 왜냐하면 유산이란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부적격자가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은 오래전에 그들을 거부했을 것이다. 유산은 부적격자가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적자생존이 아니라 부적격자의 생존이다. 그리고 종교가 그것에 책임이 있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른다. 당신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Q : 이상적인 사람은 부적격자라는 의미인가?

UG :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될 수 없다.

Q : 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UG : 그는 개인이다. 그는, 자기 안의 모든 동물적인 흔적에서 자유로워지면 인간이 된다. 동물들은 따라하고, 동물들은 리더를 만든다. 동물의 흔적이 인간 안에도 남아 있다. 인간이 지도자를 만들어내 그를 따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Q : 그는 슈퍼맨과 같은 것인가?

UG : 그는 꽃과 같다. 이것은 꽃과 같다. 각각의 꽃은 독특하다.

Q : 그 상태가 선생이 자주 언급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인가?

UG :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인류 전체의 유산에 의존해 온 것이 잘못이라는 충격적인 인식이 번개처럼 당신을 내리친다.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그런 문화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당신 안에 이런 상

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에도 해당된다. 개인의 연장이 나라이고, 각 나라들의 연장이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두 꽃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이따금 피워내는 독특한 꽃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게 소집단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의 집안싸움으로 끝나고 말지라도,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된다. 누가 이 세상을 구하라고 부름을 받았는가?

Q : 그것은 꽃들의 군락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UG : 그러나 각자의 꽃들은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인류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같은 꽃을 더 많이 배출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산은 자연이 하려는 것을 파괴했다....(내가 자연의 방식이나 진화의 목적 등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화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화가 없었더라면, 자연은 많고 많은 꽃들을 피어냈을 것이다. 그렇게 이것은 인간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로워지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인간이 겪는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이것, 즉 문화다.

그렇다면, 그 꽃 - 그 꽃은 인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찬미하고, 그에 대한 시 한 편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짓밟거나 버리거나 소에게 먹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에는 전혀 쓸모가 없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문화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더 많은 꽃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다양하고 색다른 종류의 꽃들을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

는 하나의 장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모델로 바꾸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반면에 자연은 가끔씩 다른 꽃들, 자체적으로 독특한 각각의 꽃들을, 자체적으로 제각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어 왔다. 그런 가능성이 문화로 인해 파괴되어 인간을 옥죄어 왔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과거 유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Q : 그 자연스러운 상태가 진정한 인간과 같은 것인가?

UG : 그렇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멈춘다. 그는 그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Q : 선생은 이것을 49세에 이루었는가?

UG : 엄청난 힘으로 번개처럼 내게 내려쳐진 그 충격은 모든 것을 부숴버렸고, 내 육체의 모든 세포와 내분비선을 날려버렸다. 온몸의 화학 구조가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나 의사는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마음도 없고 꽃을 수집하거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거기에는 원인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Q :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UG : 몸 전체의 화학구조가 바뀌면서 몸이 원래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화에 의해 중독(나는 의식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다)되고 오염되어 왔던 모든 것이 내 몸의 시스템에

서 빠져 나감을 의미한다. 그것의 육체의 시스템에서 빠져 나가고, 그러면 의식 혹은 삶(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은 스스로를 드러내 지극히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모든 것이 당신의 육체 시스템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혹은,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면 무신론자가 되어 무신론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무신론으로 개종하거나 한다. 그러나 이런 화학변화를 겪은 개인은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니다. 그는 그인 것이다.

인류의 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왔던 움직임, 당신을 당신인 것과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해온 어떤 움직임이 종식된다. 그래서 본래 당신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 자체의 방식으로 방해받지 않고,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인간의 과거, 전 인류의 과거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사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 위협이 된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 07, 09~2007, 03, 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患者'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재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홈페이지: 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홍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